

## 주요 내용

### 1. [노후의 3대 가족리스크]

노후의 3대 가족리스크 : 자녀리스크, 부모간병, 황혼이혼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1) 한국인의 중국 인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노후의 3대 가족리스크 : 자녀리스크, 부모간병, 황혼이혼

연령별로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50대 이후가 되면서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도 그럴것이 회사에서의 퇴직, 본인의 건강문제, 부모 간병, 자녀 문제, 부부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 되기 때문이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 간병’, ‘황혼이혼’ 리스크 등 ‘노후의 3대 가족 리스크’를 기획기사로 다루었다\*.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캥거루족’이 된 자녀와 함께 살면서, 노환으로 병원에 계시는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간병’의 길은 녹록지 않다. 또,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되었지만 노후 30년은 자유롭게 살겠다며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중장년 부부도 부쩍늘어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은 ‘황혼이혼’이다. 모두가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무엇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번 <158호>에서는 앞서 언급한 ‘노후의 가족리스크’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 (자녀리스크, 부모간병, 황혼이혼)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현재 5060세대가 직면한 주요 가족 문제 리스크를 조명해 보면서 교회의 중심 리더십 그룹인 이들의 삶에 대해 잠시 들여다 보고자 한다.

\*자료 출처 : 동아일보, ‘고령화 시대,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2022.08.07.

‘노후파산 낳는 자녀집착-간병희생... 자립교육-셀프간병 준비해야’, 2022.08.06.

‘살날 많은데 더 못 참아’... 쪼개진 재산에 마음도 쪼그라들며, 2022.08.20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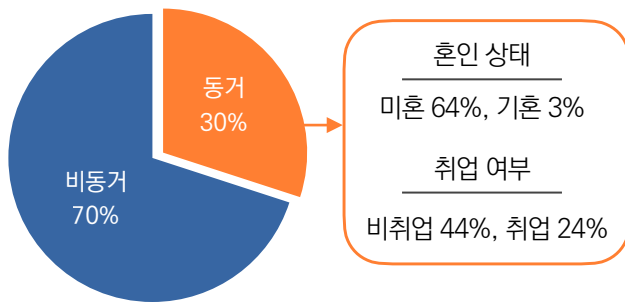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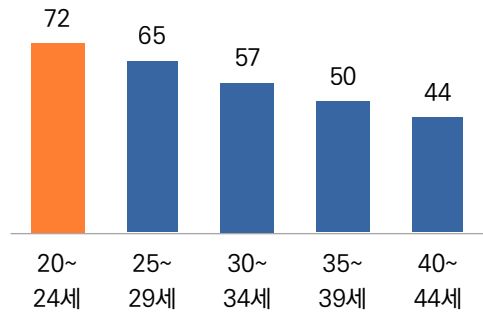
## 부모와 동거 중인 성인 썬거루족 30%나 돼!

- ▶ 성인이 되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동거하는 젊은이를 일컬어 ‘썬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비율이 만만치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썬거루족이 19~49세 성인의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 성인 자녀’가 썬거루족인 경우가 64%로 기혼 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비취업’ 성인 자녀의 경우 44%가 썬거루족이었다.
- ▶ 썬거루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고, 40~44세도 44%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요인(eg. 취업, 내 집 마련) 등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를 떠나는 나이도 점점 늦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부모와의 동거 여부\*  
(2021년 기준, 19~49세 성인 대상)



[그림] 미혼남녀(20~44세) 연령별 부모동거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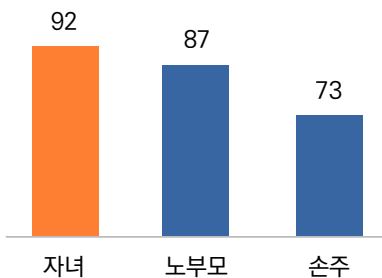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자료), 2022.06

\*\*자료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저(低)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KOSTAT 통계플러스), 2021. 봄호(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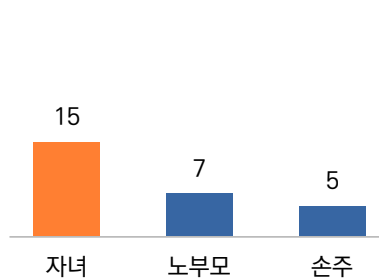
### ◎ 고령층의 대다수, 자녀 돌보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15%가 자녀를 돌보고 있어!

- ▶ 라이나전성기재단이 만 55~74세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성기 웰에이징 보고서’(2021.11)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띈다.
- ▶ 응답자의 92%는 ‘앞으로 자녀를 돌볼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15%로 ‘노부모(7%)’나 ‘손주(5%)’를 돌보고 있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노년이 되어 이제는 돌봄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녀와 노부모, 심지어 손주마저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앞으로 돌볼 계획 없다  
(각각에 대해 질문, %)



[그림] 현재 돌보고 있는 가족  
(각각에 대해 질문, %)



\*자료 출처 : 조세일보, 중장년 “은퇴하면 내 인생 실패”... 현실은 ‘썬거루족’ 자녀 부양, 2021.11.1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11/2021111143804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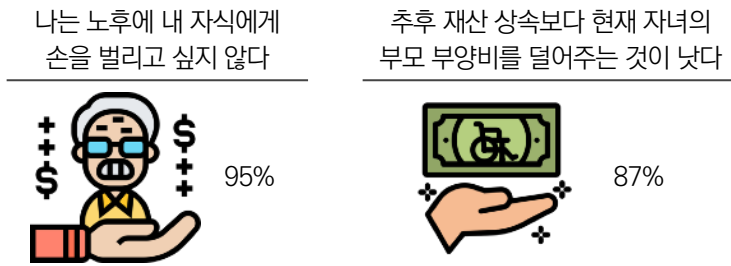
\*\*원자료 출처 : 라이나전성기재단/이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서울 거주 만 55~74세 남녀, 1,068명, 1:1대면 설문 및 개별 면접조사, 2021.06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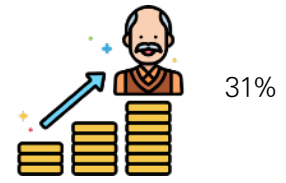
## 한국의 부모, '노후에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95%!

- ▶ 한국인들은 노후에 자녀의 부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 5060세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나는 노후에 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5%가 동의했고, '추후 재산 상속보다 현재 자녀의 부모 부양비를 덜어주는 것이 낫다'에 대해 87%가 동의했다.
- ▶ 이는 한국의 부모들이 정작 자신들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노후준비율 31%), 자신들의 노후 생활에 있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함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5060세대의 자녀 인식 (그렇다 비율)\*\*



[그림] 5060세대의 노후자금 마련 준비 (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택연금제도 관련 인식 조사', 2022.12.23. (전국 만 30~69세 성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5.-30.)

\*\*4점 척도로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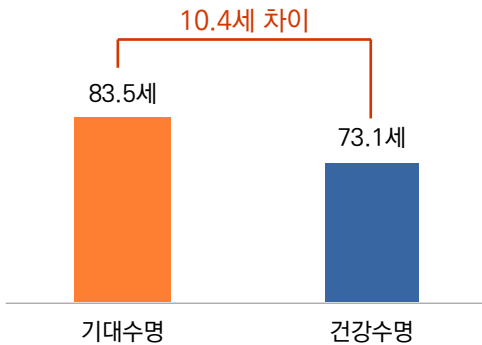
\*\*\*5점 척도로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 03

## 한국인의 기대수명 83.5세, 건강수명 73.1세, 인생 마지막 10년은 아픈 상태로 누군가로부터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

- ▶ 통계청('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2020년 0세 기준)'은 83.5세로 조사됐다.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을 일컫는 '건강수명'의 경우 73.1세여서 '기대수명'과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아픈 상태로 살게 된다.

[그림]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2020년 0세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2022.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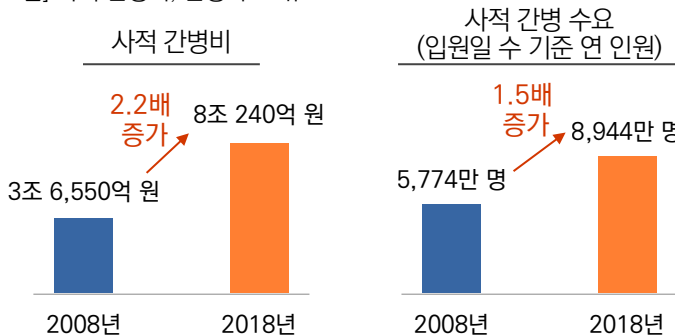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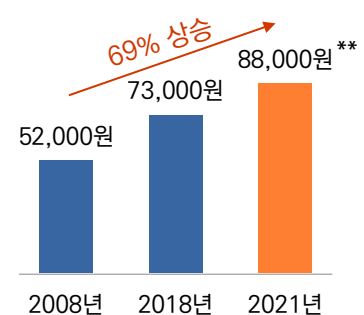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사적 간병 수요 1.5배 증가, 간병비 2.2배 증가!

- ▶ 작년에 발간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학술지에 실린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논문을 보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 6,550억 원에서 2018년 8조 240억 원으로 10년 사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적 간병 수요도 점점 늘어나 2008년 5,774만 명(입원일 수를 기준으로 한 연 인원)에서 2018년 8,944만 명으로 1.5배 증가했다.
- ▶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불리우는 '간병 파산'이란 단어는 가족 간병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이혼, 심지어는 한계에 이르러 '간병 살인'까지 가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 ▶ 간병은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는데 병원비 외에 '유급 간병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일 평균 간병비는 2008년 52,000원에서 2018년 73,000원으로 뛰었고, 2021년에는 88,000원으로 상승했다.

[그림] 사적 간병비, 간병 수요 규모



[그림] 일 평균 간병비



\*자료 출처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0호',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2021.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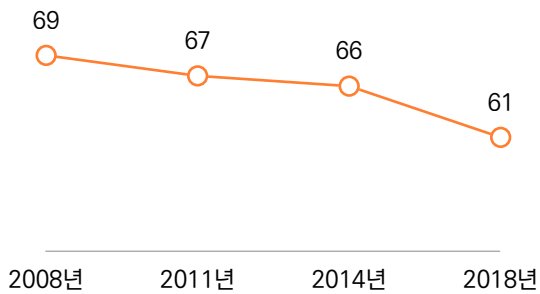
(2008, 2018 일평균 간병비는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이하 생략)' 논문, 2021 일평균 간병비는 '2021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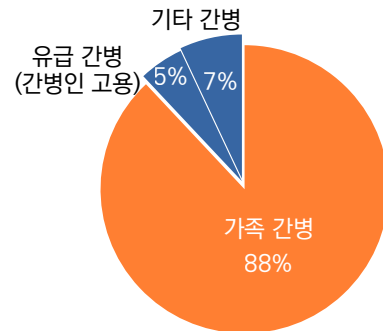
## ◎ 우리나라 입원환자 사적 간병률 61%, 사적 간병 중에서는 ‘가족 간병’ 88% 차지!

- ▶ 입원 시 환자의 사적 간병률, 즉 환자의 보호자나 고용된 간병인 등이 병실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간병 하는 비율은 2008년 69%에서 2018년 61%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입원 환자를 사적으로 간병할 때 가족의 직접 간병, 유급 간병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실은 가족 간병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따라서 고령층의 부모가 병원에 입원, 간병이 필요할 경우, 현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유급 간병인을 사용 하기보다 대부분 고령층 자녀가 간병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률 (%)



[그림] 입원환자 사적 간병 분포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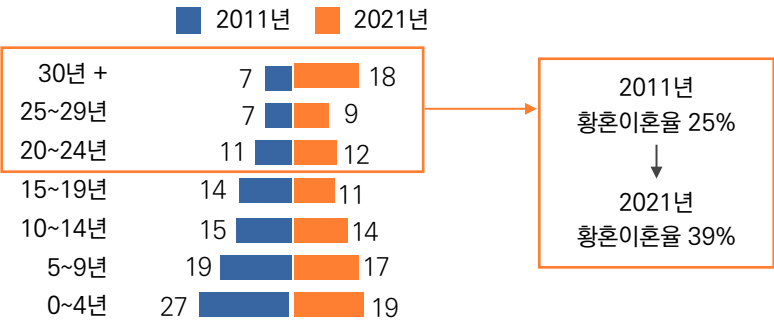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2021.03.19.  
(원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널, 각년도)

# 05

## 전체 이혼자 중 황혼이혼율(결혼 20년 이상), 지난 10년 사이 25%→39%로 증가...2021년 이혼 부부 10쌍 중 4쌍은 '황혼이혼'!

- ▶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 20년 이상 부부가 이혼한 비율을 나타내는 '황혼 이혼율'은 2021년 기준 39%로 지난 10년 사이 1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25%)
- ▶ 황혼이혼율 구성비를 보면 '30년 이상 부부'가 18%로 가장 높아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중년 이상 부부에서 이혼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년 전 초혼 평균 연령이 남성 28세, 여성 25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50대 중후반 전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림]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2011 vs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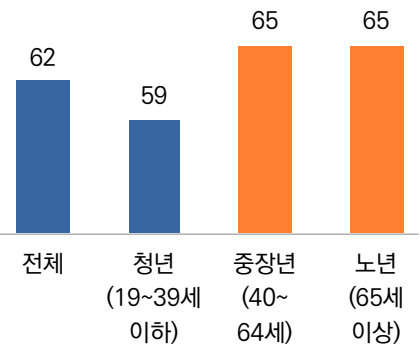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2.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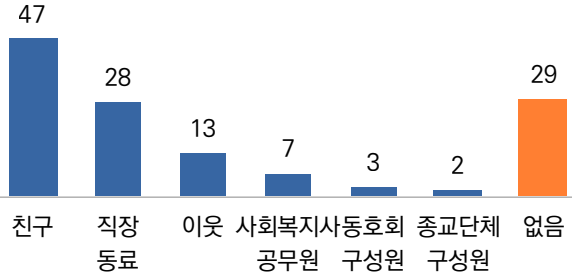
### ◎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의 65%, '외롭다!' 3명 중 1명은 '최근 3개월 내 접촉한 사람 없어'!

- ▶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대개가 1인 가구로 남게된다. 서울시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1인 가구 각 연령대별 '외로움'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 이상 고령층이 65%로 '외로움' 비율이 매우 높았다.
- ▶ '최근 3개월 이내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는 3명 중 1명(29%)이 '없음'이라고 답해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고 있다.

[그림] 외로움\*\* (서울시 1인가구 대상, %)



[그림] 최근 3개월 이내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 (중장년 1인 가구,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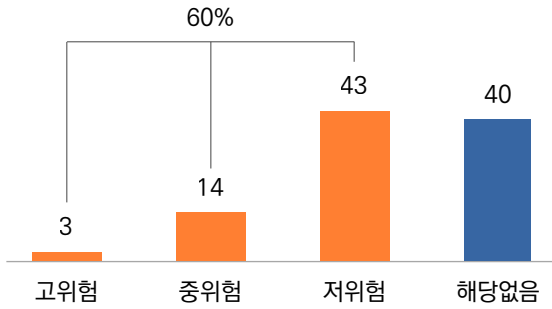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연구원, 5년 전과 달라진 서울시 1인가구의 일상 "만족도 높아졌으나 위급상황 대처에 어려움" 보도자료, 2022.05.10.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서울시 1인가구 3,079명, 대면조사, 2021.08~2022.02)

\*\* 외로움 : 미국 UCLA 외로움 조사는 20개 척도로 구성되며, 총점 43점 이상(최저20~ 최대80 범위)이면 '외로운' 것으로 간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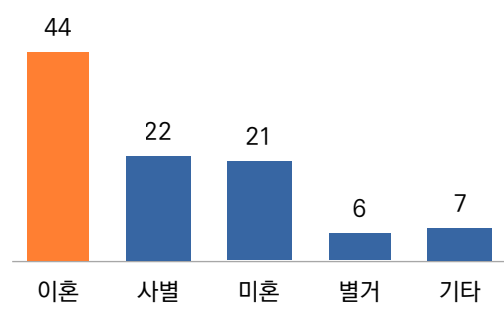
## ◎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 중 44%가 이혼자, 이들의 60%는 '고독사 위험군'!

-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의 10명 중 6명(60%)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 ▶ 한편 이들의 1인 가구가 된 이유로는 '이혼'(44%)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는 인생 노년기의 황혼이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노후의 재앙'으로 불린다.

[그림] 서울시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비율\*\*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



[그림] 1인 가구 사유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



\*자료 출처: 동아일보, 쪽방-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 기사 참조, 2022.06.20.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60,677명, 면접조사, 2021.10~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0/114006461/1>)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고립 여부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70~100점), 중위험군(40~60점), 저위험군(10~30점)으로 분류,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수화함



개미와 베짚이의 이솝 우화에서 베짚이의 게으름과 개미의 부지런함을 대비하여 개미의 현명함을 드러낸다. 이 우화를 다르게 재해석하면 개미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존재인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세익스피어 희곡의 제목처럼 사람이 젊어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노후에 불행하면 인생 전체를 불행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어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바란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어서는 자녀 사교육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는 은행 부채 때문에 여유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직장을 은퇴하고 노년에 접어들다. 노후의 경제적 대비를 하지 못한, 아니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직장 은퇴와 함께 경제적 질곡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변변한 수입은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은퇴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비, 창고 정리 등 육체 노동이 대부분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지 않다. 게다가 평생 하지 않았던 자영업을 선택했다가 투자금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넘버즈 158호에서는 이런 어려움 외에 노후에 겪는 가족리스크를 분석했다. 첫째 리스크는 자녀 리스크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를 뒷바라지 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을 캥거루족(부모 캥거루 몸 주머니에 새끼 캥거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비유)이라고 하는데 취업난, 미혼 및 이혼 등으로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식이 독립해서 편안한 생활을 즐겨야 할텐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겨야 할 나이에 성인이 된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고 경제적 보조도 해주어야 하는 생활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

둘째 리스크는 부모 간병으로 인한 리스크이다. 우리나라는 입원한 환자의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해서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부모가 입원할 경우 자식들이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데 수명이 연장되면서 간병해야 할 경우도 많아지고 기간도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다. 중장년이 되어 노부모 간병을 맡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밤낮 지내면서 간병하는게 육체적으로 여간 힘든게 아니다. 그 대안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그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1일 간병비가 2021년 기준 88,000원(5쪽)이라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2주 입원한다 하면 병원비를 제외하더라도 15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은 여간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부모님 간병을 위해 육체적 힘들음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느냐의 선택 앞에서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황혼 이혼이다. 넘버즈 158호 분석 결과를 보면 황혼 이혼이 2011년 25%에서 2021년 39%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법적 부부 관계는 유지하지만 실제적 이혼과 같은 이른바 ‘졸혼’까지 포함하면 황혼에 부부가 이별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졌다. 황혼 이혼은 가뜩이나 부족한 가정 자산이 나뉘어지고 부부 각자가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 혼자 되어서 겪는 외로움과 이혼을 했다고 하는 박탈감 등이 겹쳐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등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진다.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청소년기에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년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 그럼 점에서 교회가 장년, 노년세대 특히 그들 중 1인가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어야 하고 외로운 분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도록 도와서 건강한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한다. 약자를 도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 나이 들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약자가 되어 버린 분들에게 발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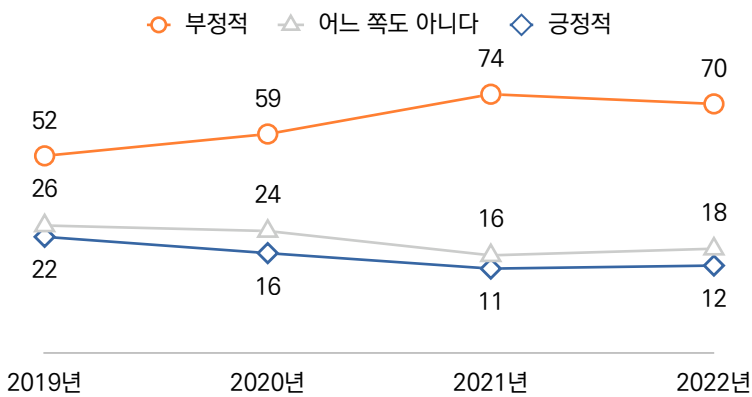
## 1. [한국인의 중국 인식]



##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은? 10명 중 7명(70%)은 '부정적'!

- ▶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하여 최근 발표한 '대중(對中)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0%)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 ▶ 3년 전인 2019년(52%) 대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8%p나 증가했고, '긍정적 인식'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긍·부정 인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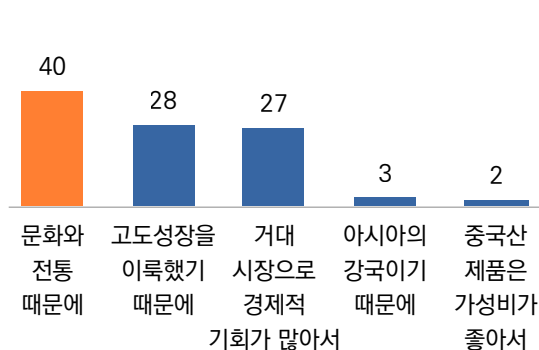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일보, '국민 70% "中 인식 부정적"..."샤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기사 참조, 2022.08.2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853>)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 '국민 대중(對中)인식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 심층 대면 면접조사, 2022.07.21.~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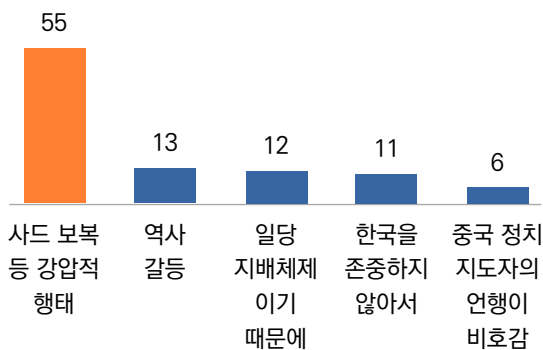
### ◎ 중국, 긍정 인식 이유 '문화와 경제 때문' vs 부정 인식 이유 '강압적 행태와 역사 갈등 때문'!

- ▶ 중국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문화·전통 때문에'가 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28%,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많아서' 27% 등 경제적 요인이 높았다.
- ▶ 한편 부정 평가 이유로 '샤드 보복 등 강압적 행태'를 꼽은 비율이 절반 이상(55%)이었고, 이 외에 '역사 갈등' 13%,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12%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중국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상위 5위, %)



[그림]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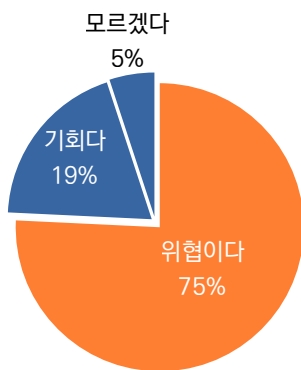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일보, '국민 70% "中 인식 부정적"..."샤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기사 참조, 2022.08.2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853>)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 '국민 대중(對中)인식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 심층 대면 면접조사, 2022.07.21.~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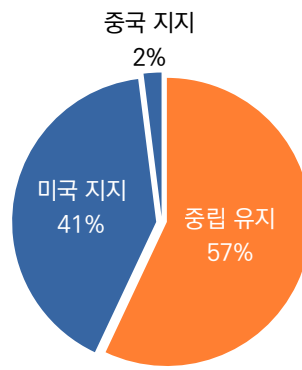
## ◎ ‘중국 부상’이 한국 경제·안보에 ‘위협이다’ 75%, 미·중간 심각한 갈등 시, ‘중립 유지’(57%) 입장이 가장 높아

- ▶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은 경제 및 정치·외교 영역에서 패권 경쟁 양상(eg.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사드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을 띄고 있다.
- ▶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회’라고 답한 비율은 19%였고, 4배 가까이 많은 75%가 ‘위협’이라고 응답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았다.
- ▶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립 유지’ 의견이 5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국(2%)보다는 미국(41%)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

[그림] 중국 부상이 한국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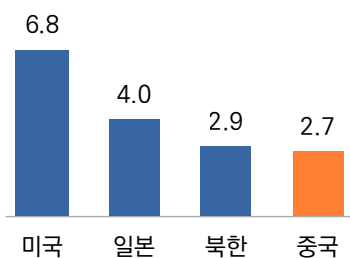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일보, ‘심각한 미·중 갈등엔...’ “중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한·중 수교 30년] 기사 참조, 2022.08.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846#home>)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 ‘국민 대중(對中)인식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 심층 대면 면접조사, 2022.07.21.~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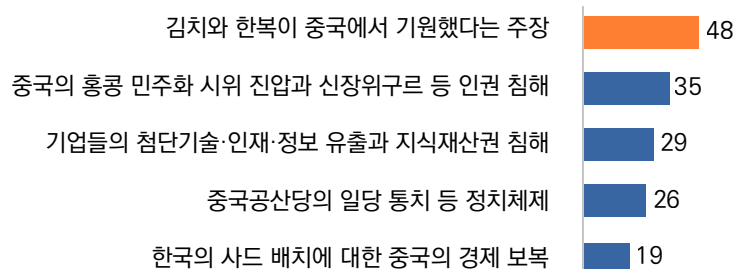
## ◎ 한국 MZ세대, ‘중국 호감도’ 10점 만점에 2.7점... 일본, 북한보다 호감도 낮아

- ▶ 한국의 청년 세대(2030세대)는 중국에 대해 어느정도 호감을 갖고 있을까? 호감도를 ‘매우 비호감(0점)’부터 ‘매우 호감(10점)’까지 11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중국 호감도가 평균 2.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 미국, 일본, 북한, 중국의 4개국 평균 호감도(2030세대 대상)를 보면 미국이 6.8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 4.0점, 북한 2.9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중국(2.7점)으로 조사됐다.
- ▶ 한편 ‘MZ세대가 중국에 비호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앞선 일반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인(1위,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태 55%)과는 달리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48%’을 꼽아 ‘문화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한국 MZ(2030)세대의 주변국 호감도  
(11점 척도, 평균, 점)\*\*



[그림]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이유 (0~4점 응답자, 복수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동아일보, ‘MZ세대 79% “中 싫다”... 北-日보다 호감도 낮아 41%’, 2022.08.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822/1150768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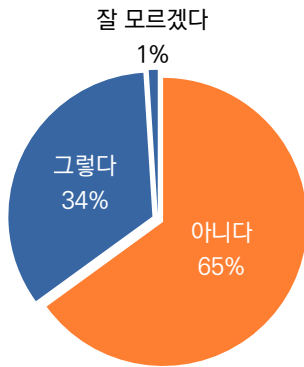
(동아일보·한국국제교류재단·성균국대연구소, ‘한·중 수교 30년 대중 인식 조사’, 전국 만 20~39세 성인 남녀 420명, 전화면접, 2022.08.11.~14)

\*\*11점 척도로 0점 매우 비호감~10점 매우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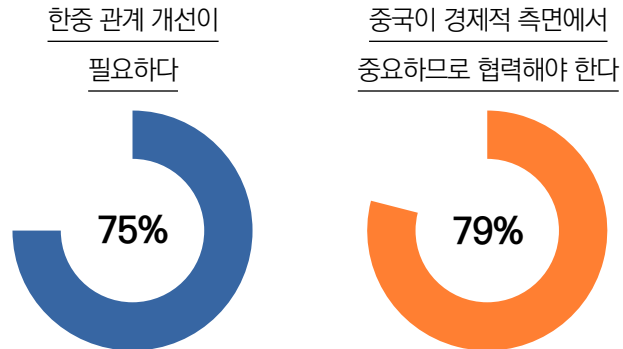
## ◎ 2030세대, ‘기회 되어도 중국 방문할 생각 없어’ 65%!

- ▶ MZ세대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MZ세대에게 ‘기회가 되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은지’ 묻은 결과, 3명 중 2명 정도(65%)가 중국 방문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 ▶ 그러나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에는 MZ세대의 75%, ‘중국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79%가 동의했다.
- ▶ 한국의 MZ세대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은 필요하다’는 실리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중국 방문 의향



[그림] 한국의 MZ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 (동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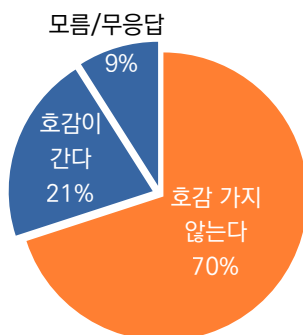
\*자료 출처: 동아일보, 'MZ세대 79% "중 싫다"... 北-日보다 호감도 낮아 41%', 2022.08.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822/115076899/1>)

(동아일보·한국국제교류재단·성균중국어연구소, '한-중 수교 30년 대중 인식 조사', 전국 만 20~39세 성인 남녀 420명, 전화면접, 2022.08.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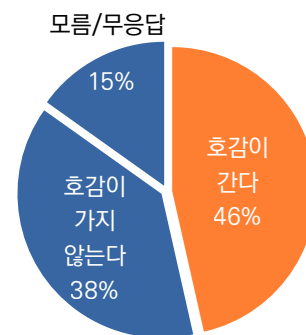
## ◎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 21%, 한국인의 ‘일본인’ 호감도 46%!

- ▶ 이번에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 대해 우리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국갤럽의 최근 ‘일본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호감 가지 않는다(70%)’가 ‘호감이 간다(21%)’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 재미있는 점은 ‘일본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는 달리 ‘일본인’ 호감도는 46%로 국가 호감도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



[그림] 한국인의 일본인 호감도



\*자료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07호(주변국 관계, 일본 관련 인식), 2022.08.12.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전화조사, 2022.08.09.~11)

\*\*2점 척도 질문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9호\(2022년 8월 4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도어스테핑, 경제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78호\(2022년 8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 사회 일반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 또 '역대 최저'...OECD 꼴찌](#)

연합뉴스\_2022.08.24.

['나홀로 노인' 345만명... "나 죽은 후에도 방치될까 두려워요"](#)

조선일보\_2022.08.24.

[1인 가구, 2030은 대학가·노년층은 노도강 모여 산다](#)

국민일보\_2022.08.30.

[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 많을수록 출산율 높는데, 한국은 왜?](#)

한국일보\_2022.08.27.

['여성이라서' 3명 중 1명 폭력 피해...가해자 절반은 연인·배우자](#)

한겨레\_2022.08.28.

[절박한 여성 빈곤... 복지 사각지대를 밝혀라](#)

여성신문\_2022.08.25.

["살기 어려워서" "답답해서"... 코로나 이후 담배 판매량 늘었다](#)

주간동아\_2022.08.22.

[근로자 연봉 가장 높은 지역은...서울 강남구, 7천 440만원](#)

연합뉴스\_2022.08.24.

['백의 나이팅가이' 병원 곳곳 누빈다...국시 합격자, 남성이 16%](#)

매일경제\_2022.08.24.

["직장인 34% 코로나19 확진 뒤 근무...4.8%는 출근까지"](#)

연합뉴스\_2022.08.28.

[사망보험금 노린 살인 60%가 가족 간 범행... 피해자 다수는 50대 이상 남성](#)

조선비즈\_2022.08.29.

[돈만 던져준 '홀로서기'는 폭탄이었다...보육원 두 청년의 비극](#)

중앙일보\_2022.08.26.

[보육원서 자립한 청년 절반 "자살 생각한적 있다"...23% 연락두절](#)

연합뉴스\_2022.08.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MZ세대

[다크웹으로 마약 산 166명 잡고보니... 2030이 90%](#)

조선일보\_2022.08.26.

[경력 이직 쉽지만...신입 취업 왜 어려울까](#)

노컷뉴스\_2022.08.29.

[청소년 디지털문해력도 최대 9%P 빈부격차](#)

동아일보\_2022.08.29.

◎ 경제

[대기업 “올 임금인상을 작년보다 높다” 49%](#)

중앙일보\_2022.08.29.

[국내 인플레 82%는 수입물가 탓, 환율 때문에 더 아팠다](#)

중앙일보\_2022.08.29.

◎ 건강

[사망 기여도 1위 고혈압, 죽음의 도화선 될 수도](#)

헬스조선\_2022.08.29.

◎ 이슈큐레이션

[“외롭지 않은 건강한 노년, 교회가 만들어야”](#)

아이굿뉴스\_2022.08.25.

[스위스는 안락사 천국일까... 존엄한 죽음 위한 '편도 티켓'의 딜레마](#)

한국일보\_2022.08.27.

◎ 국제

["마리화나 피우는 미국인,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다"](#)

매일경제\_2022.08.29.

[“아시아계 신세대 19%만이 미국인으로 용납된다고 느껴”](#)

동아일보\_2022.08.26.

[“한국은 영어 잘하는데, 왜 일본은 제자리인가”...日 언론의 한탄](#)

조선일보\_2022.08.27.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 기독교 / 종교

[만 71세 이상 교인 절반 “직분 은퇴 후에도 계속 사역 원해”](#)

기독교일보\_2022.08.25.

[지역별 소그룹 모임, 연령·사역·친분별로 바꿨더니…](#)

국민일보\_2022.08.30.

[미 목회자 열 중 아홉 “여성, 사역·성경연구 이끌 수 있어”](#)

국민일보\_2022.08.30.

## ◎ 칼럼

[결혼시장의 남녀 미스매치, MZ세대 비혼 부추긴다](#)

중앙일보\_2022.08.30.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름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근,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유영민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mailto: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 연구소 소식 |

- 저희 연구소의 후원기관인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소그룹리더십 개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청